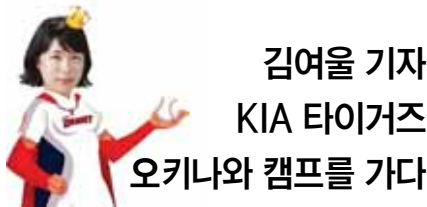




28일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열린 넥센과의 연습경기에서 1루수로 선발 출장한 KIA 서동욱(가운데)이 슬라이딩 캐치로 공을 잡은 뒤 베이스 커버를 들어온 투수 임기영에게 투스하고 있다.

빠른 발 점수 내고...철벽 불펜 점수 막고



김여울 기자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KIA, 넥센과 연습경기서 뛰는 야구 구사...5-1승
팻 던 3이닝 1실점 선전...임기영·박지훈은 무실점

KIA 타이거즈가 '뛰는 야구'로 연승을 달렸다.

KIA 타이거즈가 28일 일본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연습경기에서 5-1 승리를 거뒀다. 전날 한화 이글스와의 연습경기에서 8-7 끝내기 승을 거두며 스프링캠프 연습경기 6연패에서 탈출한 KIA의 2연승이다.

전날 '한방'으로 한화의 새 외국인 투수 오간도를 공략했던 KIA 타선이 이번에는 '스피드'로 넥센의 신인 외국인 선수 오설리반을 흔들었다.

1회말 톱타자로 나선 베나디나가 우전

안타에 이어 2루 도루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노수광의 유격수 땅볼 때 3루까지 진루한 베나디나는 안치홍의 좌전 적시타로 득점에 성공했다.

KIA는 1회초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서동욱의 2루타와 나지완 김주현의 연속 안타를 묶어 1회에 3점을 뽑아냈다.

2회에도 오설리반의 톱을 파고드는 도루가 나왔다. 김호령, 베나디나가 연속 삼진으로 몰려났지만 노수광이 우전안타로 출루하며 분위기를 살렸다. 노수광은 곧 이어 도루로 2루를 밟은 뒤 안치홍의 타석에서 나온 유격수 실책에 홈에 들어왔다.

4-1로 앞선 7회에도 도루를 더한 특점이 나왔다.

7회 1사에서 신종길이 3루수 내야안타로 출루한 뒤 가볍게 2루 도루에 성공했다. 그리고 서동욱의 적시타 때 홈인에 성공하면서 5-1을 만들었다.

한발 더 달려 점수를 만들어낸 공격으로 KIA는 기분 좋은 연승을 신고했다.

두 번째 등판에 나선 팻 던은 지난 등판보다 1이닝 더 늘려 3이닝을 소화했다. 46개의 공을 던진 팻 던은 3이닝 3피안타(피홈런) 1실점을 남겼다. 안정감 있는 피칭을 했지만 앞선 등판에 이어 133km 체인

지업을 허정엽에게 공략당하면서 두 경기 연속 피홈런이 기록됐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5km. 첫 등판에서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했던 팻 던은 이날 직구와 체인지업으로만 승부했다.

임기영이 선발로 나서 2이닝 2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고, 박지훈도 깔끔한 피칭으로 복구를 위한 준비에 속도를 냈다.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박지훈은 4-1로 앞선 8회 마운드에 올라 스트레이트 볼넷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2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는 등 깔끔한 피칭을 했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5km를 찍었다. 특유의 포크볼도 위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박지훈이 순항을 하면서 KIA의 불펜 구성에 파란불이 켜졌다.

/오키나와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호결이·호연이

인사드립니다

마스코트명 대상작 선정

'호랑이 군단'의 새로운 마스코트 이름이 호결이·호연이로 확정됐다.

새 마스코트 이름 공모전을 진행한 KIA 타이거즈가 370여 명이 응모한 이름 가운데 '호결이'와 '호연이'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호결이(Hogegori)는 수컷 무등산 호랑이로서, '영웅호결'에서 따온 이름이다. 강인하고 용맹한 호결이는 뛰어난 체격 조건과 타고난 야구 재능으로 승리의 기운을 불어 넣는 팀의 상징이다.

호연이(Hoyeon)는 호결이의 여자친구로 '호연지기'에서 따온 이름이다. 호결이의 몸상태와 움직임을 면밀히 체크하며 야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호결이에게 퍼어플레이 정진과 팀 동료와의 동행 정신, 팬 서비스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존재다. KIA는 호결이와 호연이에 캐릭터와 스토리를 부여해 팬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운동장 정리하고 덕아웃 응원단장

베테랑들의 솔선수범... 호랑이는 춤을 추네

몸으로 보여주는 KIA 타이거즈의 베테랑들이다.

지난 28일 일본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열린 KIA와 넥센 히어로즈의 연습경기, 5회가 끝나자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던 베테랑들이 분주해졌다. 이날 선발 라인업에서 빠진 '캡틴' 김주찬과 이범호 등이 그라운드를 정비하기 위한 밑대를 들고 등장했다. 외국인 투수 헥터까지 가세해 베테랑들이 그라운드를 고르며 경기 진행 도우미 역할을 했다.

훈련에서도 모범을 보이는 베테랑들이다.

김기태 감독은 지난 26일 한화 이글스와의 연습경기가 끝난 뒤 "나지완이 벤치에서 파이팅이 좋더라. 베테랑 선수들이 오늘 경기 지면 자발적으로 특타를 하고 가겠다고 하더라"며 웃었다.

이 모습을 본 김 감독은 "이겼는데도 훈련을 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웃음을 보였다.

김 감독은 베테랑 우대 정책을 펴다. 험난한 프로야구 무대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들의 노하우와 실력을 존중하는 것이다. 스프링 캠프에서도 고참들의 공식 훈련은 일찍 마무리 된다. 남은 시간의 활용은 베테랑들의 자율에 맡긴다.



KIA의 '캡틴' 김주찬과 헥터가 28일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열린 넥센과의 연습경기 클리닝 타임 때 그라운드를 고르고 있다.

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그들이다.

말수도 부족 늘었다. 베테랑들은 코치 역할까지 겸하며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고 격려의 말을 건넨다.

특히 올 시즌 '캡틴' 역할을 맡은 김주찬의 입이 바쁘다. 과묵한 김주찬은 후배들에게 훈련 시간을 통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며 훈련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까지 하며 '수다쟁이'가 됐다.

물론 후배들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따끔한 한마디도 잊지 않는 선배들이다.

'솔선수범'의 베테랑들이 묵묵히 이끌어 가고 있는 KIA의 2017 오키나와 스프링캠프다. /오키나와=김여울기자

LPGA HSBC 위민스 챔피언십 내일 개막

태극낭자 3주 연속 우승할까 박성현 정식 데뷔전 성적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한국 자매 군단의 기세가 초반부터 예사롭지 않다.

개막전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 이후 열린 호주여자오픈과 혼다 타이일랜드에서 장하나(25), 양희영(28)이 차례로 우승했다. 3개 대회를 치렀는데 벌써 2승이다.

'한국 자매 군단'은 시즌 네번째 대회인 HSBC 위민스 챔피언십에서 3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다음 달 2일부터 나올 동안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장 세라폰 코스(마72)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일정 자격을 갖춘 선수만 출전하며 컷이 없다.

앞선 혼다 타이일랜드의 비숫하지만 출전 선수가 63명으로 더 적고 출전 자격이 전년도 삼급랭킹이 아니라 세계랭킹이라는 점이 다르다.

출전 선수 63명 가운데 16명이 한국 선수로 채워졌다.

머릿수만 많은 게 아니다. 출전하는 한국 선수 7명이 세계랭킹 20위에 이름을 올렸다. 10위 이내에만 5명이다.

이번 대회 출전 선수 명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박성현(24)이다.

'슈퍼루키' 박성현은 LPGA 투어 멤버로서 데뷔전에 나선다.

올해부터 정식 멤버로 본격적인 LPGA투어에서 선수 인생을 시작하기에 '밀려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대회를 치르는 초청 선수 때와 다르다.

위낙 큰 기대를 받으며 시작하는 시즌이라 부담감이 적지 않다.

박성현은 여느 신인과 다르다. 한국에서 역대 최다 상금 기록에 역대 최저 평균타수 등을 이뤘다. '신인왕을 못 타면 망신'이라고 할 판이다.

이번 대회에 신인 선수는 박성현 혼자 출전한다. 신인은 이런 특급 대회에 출전 자격을 얻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박성현은 세계랭킹 11위 자격으로 출전권을 받았다.

박성현은 그동안 착실하게 데뷔전을 준비했다.

새로 계약한 코치 브라이언 모그의 지도 아래 스윙을 가다듬었고 쇼트게임 실



박성현

력을 끌어 올렸다. 겨우내 강도 높은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근력이 한층 더 향상됐다. 은근히 마음을 졸였던 메인 스폰서 계약도 하나금융그룹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박성현은 "첫 대회나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5위 이내에 드는 게 목표"라고 몸을 낮췄다.

겸손한 목표를 내세웠지만, 본심은 다들 지도 모른다. 박성현의 눈높이가 '15위 이내'에 맞춰져 있을 리가 없다.

박성현의 데뷔 말고도 관전 포인트가 수도룩하다.

한국 선수 3주 연속 우승 가능성이 높기 기대가 크다.

양희영과 장하나가 3주 연속 우승의 선봉에 선다. 양희영은 태극과 날씨, 코스기 비슷한 싱가포르에서 2연승을 노린다. '뒷심 부족'이라는 약점이 온데간데 없어진 양희영은 장타력과 송곳이던 안상태 컴퓨터 퍼팅까지 장착해 최강의 우승 후보로 거론된다. 작년 이 대회에서 우승하고 '비운세 맨스'를 선보인 장하나도 대회 2연패로 더 화려한 우승 세리머니를 펼쳐줬다는 각오다.

혼다 타이일랜드에서 컴퓨터 아이언샷을 과시한 유소연(27)과 부상 휴유증을 털어낸 전인지(23), 장타력을 마음껏 뽐낸 김세영(24) 등도 HSBC 위민스 챔피언십에서 시즌 마스코트 이름이 우승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평가다. 박인비의 화려한 부활도 기대된다. /연합뉴스

코리안 빅리거 시범경기

박병호 2경기 연속 홈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재진입을 노리는 박병호(31·미네소타 트윈스)가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그는 이날 팀이 7-0으로 크게 달아난 2회말 1사 2루에서는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8-3인 4회말 1사 후에는 바린 투수 알린 가르시아를 상대해 1루수 파울 플레이로 돌아섰다. 박병호는 6회초 수비 때 교체돼 경기를 마쳤다.

박병호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마이애스에 있는 샌추리링 크 스포츠 컴플렉스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시범경기에서 4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1홈런), 2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그는 0-0으로 맞선 1회말 2사 2루에서 마이애미 선발투수인 우안 호세 우리나를 상대로 왼쪽 담장을 넘기는 투런 안타를 그렸다.

추신수 2루타...안타 시동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2017년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서 2루타를 폭발, 안타에 시동을 걸었다.

추신수는 28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 스타디움에서 밀워키 브루어스와 벌인 시범경기에서 텍사스의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 4회초 교체되기 전까지 2타수 1안타 1삼진을 기록했다.

첫 타석에서 장타가 나왔다.

추신수는 0-0으로 맞선 1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밀워키 선발투수인 우완 주니어 게레라의 초구인 시속 약 147km(91.5마일) 포심 패스트볼을 공략해 중견수 2루타를 뽑아냈다. /연합뉴스

이틀 전 보스턴 레드삭스와 경기에서 첫 홈런을 생산한 데 이어 2경기 연속 홈런. 박병호는 전날 워싱턴 내셔널스전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는 이날 팀이 7-0으로 크게 달아난 2회말 1사 2루에서는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8-3인 4회말 1사 후에는 바린 투수 알린 가르시아를 상대해 1루수 파울 플레이로 돌아섰다. 박병호는 6회초 수비 때 교체돼 경기를 마쳤다.

'KBO리그 홈런왕' 출신인 박병호는 메이저리그 진출 첫해인 2016시즌 부진으로 현재 마이애미가 신분으로 스프링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며 다시 한 번 폴 몰리터 감독 등 코치진의 눈도장을 받았다. /연합뉴스

추신수의 올해 시범경기 첫 안타다. 추신수는 전날 올해 처음 뒀 시범경기에서는 2타수 무안타에 그쳤지만, 두 번째 출전에서 안타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을 이루지는 못했다.

3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맞은 두 번째 타석에서는 1볼 2스트라이크에서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다.

이후 추신수는 0-0이 이어진 4회초 수비를 앞두고 자이로 베라스와 교체됐다. 작년까지 3년간 한국 NC 다이노스에서 뛰다가 메이저리그로 복귀한 에릭 테임즈(31)는 밀워키 4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 추신수와 맞대결을 펼쳤다.

테임즈는 3타수 무안타 2삼진으로 침묵했다. /연합뉴스